

동서양이 꿈꾼 理想國

- <안민가>와 <국가>의 이상국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이은영, 2016*****

<목차>

I. 들어가며

II. 동양과 서양의 이상 국가

2.1. 플라톤 『국가』와 서양의 이상 국가

2.2. 「안민가」와 동양의 이상 국가

III. 『국가』와 「안민가」 비교

IV. 나오며

V. 참고문헌

I. 들어가며

이상국(理想國)의 설립은 국가에 속한 모든 이들의 바람이다. 또한 이상적인 국가의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 대한 논의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등장한다. 동양과 서양에서 등장하는 이상국가의 대한 논의는 서로 닮은 부분이 있는 가하면 서로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것에서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동양과 서양의 이상 국가에 대한 비교 논의는 이미 예전부터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철학적, 정치적 접근으로 많이 다루어진 바, 본고에서는 그 접근을 새로이 하고자 한다.

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문학 작품으로 하여금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양의 이상적인 국가와 플라톤이 설명하는 국가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상 국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 그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이 본고의 목표이다.

따라서, 서양의 이상적인 국가는 서양 철학의 정수라 여겨지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그가 그리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통해 서양의 이상 국가의 특징 및 설명을 마친 후, 동양의 이상적인 국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동양의 이상 국가에 관한 설명은 현재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한국의 향가 작품 중, 그 주제의식이나 목적이 기존의 향가와 다소 다른 작

품인 승려 충담의 「안민가」에서 찾아내 설명코자한다.

II. 동양과 서양의 이상 국가

2.1. 플라톤 『국가』와 서양의 이상 국가

서양 철학의 정수인 플라톤이 설명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연의 원칙에 따라 세워진 나라가 지혜로운 것은 전적으로 지도자와 치자 집단이라는 최소 부류와 그 부류가 가진 지식 덕분이네.¹⁾

나라의 용기 역시 지혜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한 부분에 달려 있네.²⁾

절제는 용기나 지혜와는 다르기 때문일세. (중략) 절제란 국가에서나 개인에게서나 더 나은 부분과 더 못한 부분 가운데 어느 쪽이 통치할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합의라고, 이 양자 간의 자연스러운 협화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결세.³⁾

그러니까 상호 참견과 교환이 불의일세, 반면, 상인 계급과 보조자 계급과 수호자 계급이 제 할 일을 함으로써 나라 안에서 제구실을 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나라를 올바르게 만들어주겠지?⁴⁾

우선, 플라톤이 그린 이상적인 국가는 위와 같이 지혜, 용기, 절제로 총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 부분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정의라 말한다. 또한, 그 3가지의 특징이 순서대로 각각 국가를 구성하는 3개의 계급인 수호자 계급(지혜), 보조자 계급(용기), 상인 계급(절제)과 짝을 이룬다. 이러한 이 세 부분은 서로에게 참견하지 않고 교환이나 간섭을 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국가가 올바른 것은 그 안의 타고난 세 계급이 저마다 제 할 일을 하기 때문이며, 국가가 절제 있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까닭은 이들 세 계급의 심적 상태와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데 합의 했네.⁵⁾

다시 말해, 그가 말하는 정의와 정의로운 국가란 각자 자기적성에 가장 잘 맞는 한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개인이 지켜야 할 정의이며, 각 계급이 나라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고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라 설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理想國)은 나라를 구성하는 세 계급이 서로 상호참견이나 교환을 하지 않고 제 맡은 바를 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

1) 플라톤, 『국가』, 천병희 역, 도서출판 숲, 2013, 227쪽.

2) Ibid, 228쪽.

3) Ibid, 233쪽.

4) Ibid, 238쪽.

5) Ibid, 240쪽.

또한, 그는 세 계급 중 그 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나라를 세움에 있어 중추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는 통치자 계급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철인(哲人)들이 국왕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국왕 또는 치자라 불리는 자들이 진정한 철인이 되기 전에는 그리하여 정치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결합되고...(후략)⁶⁾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구불변하는 것을 포착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⁷⁾

영구불변의 것을 포착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인 철학자(철인)를 통치자로 삼아야 한다고 플라톤은 설명한다. 철학자들은 본성적으로 기억력이 좋고 이해가 빠르고, 도량이 넓고 우아한데다 진리, 정의, 용기, 절제의 친구이기에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야 한다는 근거를 든다. 그리고 그 뒤로 플라톤은 한동안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철인에 대한 논의를 더 강조한 뒤에야 다른 논의로 넘어간다. 이처럼 플라톤은 철인통치의 거듭 강조하며 이상국의 설립에 있어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2.2. 「안민가」와 동양의 이상 국가

그렇다면 앞선 플라톤이 말한 이상적인 국가와 한국 향가 작품인 「안민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양의 이상적인 국가는 무엇이 유사하고 또 어떠한 점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안민가」는 신라 경덕왕 24년(765년)에 승려 충담이 지은 10구체 향가로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다음은 작품의 유래와 배경설화를 현대어로 풀이한 것이다.

3월3일(765년)에 왕이 귀정문의 누 위의 나가서 좌우의 측근에게 말하기를, “누가 길거리에서 위의 있는 승려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겠느냐?” 라고 하였다. 이때 마침 위의가 깨끗한 고승 한 분이 배회하고 있었다. 좌우 측근들이 그를 보고 데려다 보이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위의 있는 승려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를 물리쳤다. 다시 한 승려가 남의를 입고 앵통을 지고서 남쪽에서 왔다. 왕이 그를 보고 기뻐하면서 누 위로 맞아서 그 등속을 보니, 다구가 들어 있을 뿐이었다. 왕이 묻기를, “그대는 누구요?”라고 하니, 승려가 대답하기를, “충담 이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묻기를, “어디서 오시오?”라고 하니, 승려가 대답하기를, “소승은 3월 3일과 9월 9일에는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에게 차를 다려 공양하는데, 지금도 차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과인에게도 차 한 잔을 줄 수 있소?”라고 하니, 승려가 곧 차를 다려 왕에게 드렸는데, 차의 맛이 이상하고 찻잔 속에는 특이한 향이 풍겼다. 왕이 말하기를, “짐이 일찍이 듣기로는 스님이 기과랑을 찬양한 사뉘가가 그 뜻이 매우 높다고 하던데, 과연 그러하오?”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그러하옵니다”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짐을 위해 백성을 편안히 다스릴 노래를 지어주시오”라고 하니, 승려가 즉시 칙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 왕이 그를 아름답게 여겨 왕사로 봉하니, 승려는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6) Ibid, 312쪽.

7) Ibid, 328쪽.

安民家

안민가는 이렇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 하실지면

백성이 그 사랑을 알리라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物生)에게

이를 먹여 다스린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면

나라 안이 유지됨을 알리이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하리이다

삼국유사 제2 기이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⁸⁾

위 작품은 기존의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고자 했던 향가의 목적⁹⁾과는 달리 백성을 다스려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어 보다 효용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 통치자가 지향해야하는 정치의 모습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이 신라시대의 승려가 지었으나 유교적인 사상이 상당히 지배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군(君), 신(臣), 민(民)간의 관계 설정이다. 왕은 아버지이고 신하는 어머니이며 백성은 자식이라 비유한 뒤, 임금이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백성 역시 그러해야 나라가 태평하다고 강조하며 끝맺는다. 다시 말해, 각각 자신이 처한 신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비록 현대어 해석에 따라 임금, 신하, 백성이 각자의 직분에 맞게 행동한다면 나라가 태평하다는 교훈적 권고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여 나라가 태평하지 못함을 꾸짖고 직분에 맞게 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의 의미로 나뉘어 해석되기도¹⁰⁾ 하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임금, 신하, 백성으로 이루어진 3계급이 각각 자신의 맡은 역할에 맞게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각 직분 및 명분에 충실함을 지향하는 것을 동양의 지배적인 철학 사상인 유교에선 ‘정명(正名)론’이라 일컫는다.

보다 자세히, 정명론은 명분을 바로 세우려는 주장을 말한다. 이는 『논어』에서 공자(孔子)가 ‘반드시 명분을 바로 세워야 한다. 명분이 바로 서지 못하면, 말이 올바르지 못하고, 말이 올바르지 못하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정명론은 동양의 전반에 걸쳐 있던 유교 사상에서 세상의 안정을 위해 거론되는 것이었다.¹¹⁾ 그리고 이는 「안민가」

8) ‘안민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17.12.18.)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itemId=sy&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1&levelId=sy_002r_0010_0070_0010

9) 대체로 많은 향가들은 노동요, 주술적인 의미가 담긴 무가(巫歌), 찬양 및 추모의 내용을 담은 경우로 이루어져 있다. ‘서동요’, ‘도솔가’, ‘처용가’ 등이 그 예이다.

10) 구절을 나눔에 따라 문장의 서술어가 앞에 붙을 경우, 교훈적 권고의 의미로 해석되는 반면 서술어를 뒤로 둘 경우, 도치 구문이 되면서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속에서 ‘아오, 군(君)다이 신(臣)다이, 민(民)다이 하날단 / 나라악 태평하니이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 나라 안이 태평할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마지막 구절에 드러남을 찾아볼 수 있다.

Ⅲ. 『국가』와 「안민가」의 비교

이처럼 「안민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각 직분에 충실해야하고 자신이 가진 이름에 걸맞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하였을 때, 세상이 태평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플라톤이 말한 제할 일을 다 하는 정의롭고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를 이루는 요소를 통치자 - 수호자 - 상인으로 플라톤이 나눴듯이, 「안민가」 역시, 임금 - 신하 - 백성과 같이 3부분으로 나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유사성일 뿐 그 내막을 파헤쳐보게 되면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플라톤의 『국가』와 승려 총담의 「안민가」를 3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의 차이와 통치자에게 필요한 교육 대한 논의, 그리고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민본주의(民本主義)의 여부

앞서 살펴본 2가지의 이상국은 민본주의의 전제가 있는 가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정치 및 철학사상의 차이이지만 이는 치자와 피치자라로 이루어진 정치체계에서 동양과 서양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므로 짚고 가고자 한다.

우선, ‘민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민본주의’란 민심(民心)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사상으로 『서경』에서 나온 말이다. 민본, 즉 백성은 정치적 주체이자 정치적 객체이기도 하며 국가 구성 요소로도 작용한다. 이는 백성이 국가 구성의 기반이고 목적이자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주의 정치적 행위는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통치에서 민심을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다.¹²⁾

이러한 민본주의는 안민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物生)에게 / 이를 먹여 다스린다 /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면 / 나라 안이 유지됨을 알리이다’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은, 이를 먹임으로써 다스려져,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가라?’라고 백성들이 말한다면 나라가 유지될 줄을 아실 것입니다.) 즉,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선 백성들이 이 땅에 거처를 꾸리고 살아야 한다는 민본주의를 내보인 것이다.

반면, 플라톤은 민본주의 보다는 이상적인 국가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한다.

아무튼 우리가 국가를 건설하는 목적은 한 집단을 특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11) ‘정명론’,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두산백과), (2017.12.1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391&cid=40942&categoryId=31532>

12) “민본주의”,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7.12.18.),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5186&cid=46649&categoryId=46649>

전체를 최대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걸세. (중략) 지금 선택된 소수의 행복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행복을 확보함으로써 행복한 국가라고 생각되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네.¹³⁾

플라톤은 위와 같이 말하면서 국가 건설의 목적은 한 집단만의 행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최대행복을 찾고자 함에 있다고 밝힌다. 즉, 백성이라는 특정한 집단을 바탕으로 펼쳐나가는 정치가 아닌 정의를 발견하기 위한 최대의 행복을 확보하는 정치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결국, 「안민가」는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백성에 대해 그 중요성을 표현한 반면, 플라톤의 『국가』에선 백성(상인계급)을 바탕으로 한 민본주의보다 전체 속에서 정의를 찾으려 하고, 수호자와 보조자에 대한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국가』와 「안민가」에서 각자가 가진 전체가 다르며 이에 따라 중심으로 다루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

2) 통치자 교육에 대한 관점

플라톤은 이상적인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그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통치자를 위한 교육들을 입법화 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통치자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나이에 따라 나뉘었으며 절제된 시가 문학과 단순한 선율의 음악만이 통치자를 위한 교육이라 설명한 뒤, 이러한 교육 이후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들이 배워야 하는 과목을 산수, 기하학, 천문학, 문답법등의 순서로 나누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술 보다 이성을 강조하는 수학적 지식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철인이 치자가 되어 입법의 과정을 거쳐 제도로써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통치자와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시킬 방법이라 말한다.

반면, 「안민가」속 정명론을 설명하고 있는 유교에서 동양의 이상적인 통치자에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¹⁴⁾와 ‘수기안인’(修己安人)¹⁵⁾의 자세가 요구된다. 이에 공자는 정치를 할 때 군주의 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군주의 덕은 군주의 자율적 인격에 맡겨져 군주가 스스로 수신하여 덕으로 선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한다.¹⁶⁾ 또한 유교에선 ‘예악(禮樂)’을 강조하며 예(禮)로써 사회질서를 수립하고 악(樂, 음악)으로써 이를 표현해 자신을 수양할 때에 불가분의 관계라 인식한다. 이처럼 동양의 이상적인 통치자는 개인 스스로의 수양과 반성을 우선시하고 음악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통치자의 교육에 있어 플라톤은 교육을 입법화하는 것과 예술보단 지혜와 수학적 지식을 강조한 반면 동양의 이상적인 통치자는 교육제도를 입법화하기보단 스스로 하는 자기 수양의 강조와 예술(음악)로써 교화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3)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

안민가 속 마지막 구절에서 비롯하여 알 수 있듯, 동양의 경우 왕이 먼저 잘해야 백성이 이를 보고 따른다. 즉, 임금은 아버지요 백성은 자식이므로 부모가 잘해야 이를 자식이 보고 배운다는 점을 의미하며 통치자의 도덕성을 강조한다. 이에 맹자는 도덕적 주체인 군주가 4단

13) 플라톤, op. cit., 209쪽.

14)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의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한다.

15) 자신의 삶을 제대로 건사하고 주위를 편안하게 한다.

16) 류인숙, 「實學에서의 民本主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16쪽, 참조.

(즉, 수오, 사양, 시비지심)을 터득해서 백성들에게 규범적 차원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며 군주를 도덕에 의해서 지배를 하는 존재로, 백성은 군주에 의해 도덕적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설명한다.¹⁷⁾

반면, 플라톤의 경우, 통치자는 통치자대로 할 것이 있고 그것을 잘하면 통치자는 제 몫을 다하는 것이라 말하며 상인 역시, 상인대로 맡은 바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혹여, 상인이 통치자를 배우고 그를 따라하는 것은 플라톤이 말한 각자가 맡은 바를 다 해야 한다는 정의와 어긋나는 것이다.

즉, 「안민가」와 『국가』 둘 모두 나라를 세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그 각 부분들이 제 맡은 바를 다할 때에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안민가」에서는 통치자를 부모로, 백성을 자식으로 바라봐 통치자가 모범이 되어야 백성이 이를 따른다고 말한다. 반면, 플라톤은 이와 무관하게 각자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다 하는 것만을 말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

IV. 나오며

이처럼 본고에선 플라톤의 『국가』와 승려 총담의 「안민가」를 비교 분석 해보았다. 둘 간의 비교를 통해 어느 것이 더 낫다는 우위비교를 하고자 함이 아니었으며, 두 작품이 각각 그린 이상적인 국가 속, '각 직분에 맡은 바를 다 해야 한다.'라는 표면상의 공통점에서 분석을 시작하였다. 이후, 동일한 표현이지만, 동서양에 따라 위 문장 안에 담고 있는 그 전제조건과 과정이 다를 것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플라톤의 『국가』로 대변되는 서양의 이상적인 국가는 이성적인 지혜와 효율성이 두드러지고, 각각의 계급이 서로 참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의라 말한다. 또한, 통치자들은 오직 고도의 교육을 받아 철학적 지식을 가진 철인들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엘리트주의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예술보다 수학적 지식을 강조하며 통치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들을 입법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승려 총담이 쓴 「안민가」에서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민본주의'와 명분에 맞게 행해야 한다는 '정명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동양의 이상적인 국가와 연결 지을 수 있었는데 제도화된 교육보다 우선하여 자신을 수양하고 반성해야 하는 군자의 자세와 민심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를 이상으로 삼고 임금의 백성의 아버지라는 비유를 통해 통치자의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두 작품 간의 분석과정을 통해 플라톤의 『국가』를 접할 때에 그 진입장벽이 낮아지기를 원하였고, 「안민가」 역시 단순히 유교 사상을 가진 향가작품이라는 것 보다 한 발짝 더 다가가 그 안의 담긴 정치적 이상을 이해하고자 함에 본고의 의의를 둔다.

V. 참고문헌

참고서적

1. 플라톤, 『국가』, 천병희 역, 도서출판 숲, 2013.

참고 문헌

17) Ibid, 19쪽, 참조.

1. 류인숙, 「實學에서의 民本主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웹사이트 참고문헌

1. “민본주의”,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5186&cid=46649&categoryId=46649>

2. “안민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itemId=sy&synonym=off&chinessChar=on&page=1
&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1&levelId=sy_002r_0010_0070_0010](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itemId=sy&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1&levelId=sy_002r_0010_0070_0010)

3. “정명론”,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391&cid=40942&categoryId=31532>